

9월의 안테나

노영한

(본지 편집국장)

업계의 의견을 모우자

업계가 어려워지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비례하여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웬일인지 업계 지도층 인사들 간에는 방법론에 있어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를수 있고 의견의 획일성 보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교향악단처럼 하나의 화음을 이룰때 그 소리는 모든 사람이 한가지 소리만을 외치는것 보다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다.

하나의 교향악단이 훌륭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휘자는 물론 연주자 각각의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노력이 요구된다.

한 젊고 재능이 넘치는 지휘자가 런던에서

당대 최고의 교향악단을 지휘하게 되는 영광을 얻었다.

지금도 TV화면을 통해 구주의 유명 교향악단의 연주를 보노라면 백발의 나이 많은 연주자가 음악에 심취되어 연주에 열중한 장면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재기 넘치는 젊은 지휘자는 연습도중 혼연주자가 소리를 크게 내어 소리를 줄이라고 싸인을 하자 연주자는 약간 소리를 줄이게 되고 이에 만족치 못한 지휘자는 더 적게 더 적게 더욱 적게 요구하여 연주자가 이에 따라



더욱 적은 음으로 연습을 마쳤다.

연습을 마친후 이백발의 연주가는 자식같은 지휘자의 등을 다정하게 쳐주며 “여보 젊은이 이곡을 브라암스가 작곡하여 브라암스의 지휘로 연주할 때 그 때도 내가 연주하였는데 브라암스는 더 크게 소리를 내라고 하였었오”하고 사랑에 넘치는 말로 지휘자에게 말하고 그 자리를 떠난후, 젊고 재능이 많고 패기에 찬 이 젊은 지휘자는 많은것을 깨닫고 이곡을 다시 이해함으로써 좋은 연주를 할 수 있었고 이 지휘자는 이로 인해서 독선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었다는 실화가 있다. 자기의 생각만이 절대적이고 만고불변의 진리로 생각하고 자기의 뜻대로 지휘하는 지휘자, 또한 지휘자와는 관계없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전체 화음과는 관계없이 자기 뜻대로 연주하는 연주자, 이들이 우리 업계를 곤란하게 만들고 양계업자를 괴롭힌다.

이들에게 좀더 업계를 이해하고 내가 업계에서 할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를 인식시키는 일을 누군가가 빨리 해야 하겠다.

쇠고기 가격의 자율화

축산인의 숙원이던 쇠고기값 자율화가 8월 5일부터 실시되었다.

축산인이 그동안 그토록 쇠고기 값의 자율화를 외치려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그중에는 쇠고기값을 행정지도 가격으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돼지고기, 닭고기 값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쇠고기 값이 자율화 되었다고 해서 천정부지로 오를수도 없겠고 오르는 것을 정부가 방관만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자유화 5일째인 10일 일간지 광고란에 보면 한남 슈퍼마켓에서 쇠고기 가격과 함께 돼지고기 근당 1900원, 닭고기 1800원에 판매하겠다고 게시되어 양계업자는 어리둥절하게 까지 하였다.



정육인지 가정용 통닭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닭고기가 슈퍼마켓을 통해 대량 소비되어 지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번 쇠고기값 자유화에서 우려 되는 것은 한우의 절대량이 부족한 가운데 자율화가 실시되었고 무제한의 정육점 허용은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가져와 닭고기의 상대적인 소비 위축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쇠고기 소비구조아래서 수입쇠고기의 물량이 차질하면 과다 수입될 우려마저 있게 된다.

양축가들이 바라던 쇠고기 가격 자율화가 양축가들이 원하던 방향으로 나아갈수 있을지 더 두고 보아야 하며 양돈 양계농가도 이 제도가 정착 되도록 협조하여야 하겠다.